

중등교재에 쓰인 영어상의 의미 · 분석

양 용 준
(제주대학교)

Yang, Yong-jun. 2006. A Meaning Analysis of English Aspect in the Middle School Textbooks. *Language Teaching and Research* 2(1), 89-112.

The purpose of this present paper is to study and analyze the meaning of basic English Aspect and the meaning and usages of the English Aspect in the tex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aspect and tense. But they are related the time. Tense is a grammatical time reference, and it locates the time of situation relative to the moment of speaking. However, aspect is not concerned with relating the time of the situation to any other time-point, but with the internal temporal constituency of the situation. In other words, it describes the temporal quality or condition of a situation in terms of such things as inception, result, termination, iteration, repetition, duration, etc. Originally, the aspect was understood as the states or characteristics which the verbs mean, however the concept of aspect has changed with the development of transformational generative grammar. In English, aspect is not a grammatical category but a nongrammatical lexico-semantic category which lacks formal markers. There are two basic aspectual oppositions, the perfective aspect and the imperfective aspect. The veritable aspect forms of English are "have + pp" as perfectivity and "be + V-ing" as progressiveness. These belong to the grammatical categories of English aspect. There are also lexical categories of English aspect, in other words, they are things such as inception, result, termination, iteration, repetition, duration, etc. Aspect seems to be unfamiliar with general learners because they are not accepted in traditional grammar. To precisely understand the English aspect, we have to recognize the grammatical and lexical category of aspect. This thesis emphasizes the meaning of aspect and analyzes the meaning and usages of aspect in Secondary School English Text. Aspect was not conducted largely in Text and it was contained in tense. Although it conducts, it was very small and made too much each aspect. Aspect related to the event and is expressed in every language and in various situations. So, we should think about aspect instead of tense. (Cheju National University)

1. 서론

시가는 이 지구상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나 공통된 연속성과 일과성을 내포

범주화 시켜 언어로 나타낸 것이라 간주된다. 그리고 상이란 것은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을 그 전체적인 측면 및 내적 시간구성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한 문법범주로 파악한다. 그러므로 시제와 상은 둘 다 시간과 관련된 문법범주이다. 그러나 시간 개념을 나타내는 문법범주로 상범주보다는 시제범주를 대표적인 것으로 꼽고 있다. 물론, 현대 영문법과 학교 문법에서는 시제라는 개념 속에 상과 시간을 포함 시켜서 언급해 버리는 경향이 있으나 어린아이가 모국어를 습득함에 있어서도 시제보다는 상을 먼저 터득해야 하고 또 그것이 일반적인 순서라는 점에서 상의 중요성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시제와 상은 시간관계를 동사의 형태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구별이 서로 어려워 그것을 연구하는데도 여러 난점이 제시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입장이 언어에 따라 다르고 또 논자마다 분석방법이 복잡하여 그것을 습득하는데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졌던 것도 사실이다.

영어를 배우는데 학습자들에게 영어의 시간, 시제, 상의 개념은 분명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본 연구는 영어의 시간, 시제, 상의 관계와 개념들을 명확히 해보고, 이를 토대로 교재 속에 나타난 상, 문법적 상 즉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상에 대해서만 분류를 해서 의미와 쓰임을 살펴보고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시간 · 시제 · 상의 개념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제(Tense)를 시간 관계를 나타내 주는 문법 범주로 특히 동사 형태에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반면에 상(Aspect)의 개념은 일반 학습자들에게는 생소하게 들리는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학교 문법의 주가 되는 전통 문법학자들 가운데에는 Otto Jespersen처럼 상 범주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 문법인 전통 문법에서는 영어 동사에 관련된 현상들을 포착하기 위하여 시제 개념을 많이 사용했다.

2.1. 시간과 시제

시제와 상을 언급함에 있어서 우선 고려해야 할 점은 둘 다 시간(Time)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간의 개념은 이 지구가

들여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간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어 보면 Hawking(1988)은 St. Augustine, Aristotle, Newton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시간이라는 것이 의미를 잘 알 수 있다. 김건옥(1994:20)은 시간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Time was a property of the universe that God created, and that time did not exist before the beginning of the universe.”

“시간이라는 것은 신의 만들어낸 우주의 한 단편이라 할 수 있으며, 시간은 우주가 생성되기 전에는 존재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즉 우주의 생성과 우주의 시간의 시작을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시간이란 인류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니 훨씬 그 이전부터 내려와서 영원한 미래를 향하여 끊임 없이 흘러 내려가는 일련의 흐름을 말하는 것으로 언어 없이도 존재 할 수 있는 것이다. 비록 시제와 상이 시간과 관련이 되어 있다 할 지라도 시제와 상은 동일시 될 수가 없으며 시제형 안에는 시간 관계를 표현하는 것과 함께 반드시 동작의 양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상과 시제를 언급하는데 있어서 먼저 해야 할 것은 시간과 시제의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과 시제는 언뜻 혼동되기 쉬우나 각각 별개의 것으로서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과 시제에 대하여 지금까지 별 이견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Jespersen의 언급이다. 그는 시간과 시제를 다음과 같이 구별하고 있다.¹⁾

It is important to keep the two concepts time and tense strictly apart. The former is common to all mankind and is independent of languages; the latter varies from language to language and is the linguistic expression of time-relations, so far as these are indicated in verb forms.

시간은 모든 인류에 공통되는 자연적인 것으로 언어가 없이도 존재할 수 있지만 시제는 언어에 따라 제각기 다르며 시간 관계를 동사의 형태에 의해 나타내는 언어적인 개념이다. 즉 시간이란 인류가 생존한 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내려와서 영원히 미지의 장래에까지 뻗쳐 내려가는 일련의 흐름이며 따라서 만민에게 공통되는 과거시, 현재시, 미래시라는 경과를 나타내는 것이며 언어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이에 반해 시제는 언어없이 존재

할 수 없는 것으로 극히 언어적인 개념이다.

그리고 Quirk와 Greenbaum도 시간과 시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²⁾

Time is a universal, non-linguistic concept with three divisions; past, present, and future; by tense we understand the correspondence between the form of the verb and our concept of time.

즉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와 관련되는 비언어적인 개념이며, 시제는 동사의 형태와 시간의 개념과의 대응 관계인 것이다.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자연적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것이고 시제는 이런 시간의 흐름을 문법 체계를 통해 언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시제라는 것은 만인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의 경과 과정을 언어 기호의 일부인 주로 동사 형태를 통해 표시하여 보려는 시간 관계의 언어적 표현인 것이다. 이렇게 시제는 언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 언어의 형태가 상이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제의 형태도 언어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도 예견된다. 따라서 시간에는 어느 때에나 변하지 않는 연속성과 공동성이 있는데 비하여 시제는 이질적인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시제와 시간은 일대일의 대응 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시제의 명칭과 다른 시간을 가리키기도 한다.

(1) Tomorrow I go to Boston for a check up.

위의 (1)의 문장은 현재형이 동사로 쓰여졌으나 이 현재형의 문장이 현재시의 상황을 가리키지 않고 미래시의 상황을 가리키고 있다. 즉 현재형이 현재시와 반드시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형은 역사적인 사실을 가리킬 수도 있고, 미래를 가리킬 수도 있으며 때로는 습관적인 반복을 가리킬 수도 있다.

2.2. 시제와 상

하나의 문장 내에서 동사가 나타내는 시간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외면적으로 표면에 나타나서 형태로 알 수 있는 시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동작의 양태, 유형, 특질을 나타내는 내면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상이다. 그러나

이 둘은 각각 따로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동사에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상과 시제를 분리해서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하나의 동사에 두 개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둘 다 시간(Time)과 관련이 있다. 즉 시제와 상을 언급함에 있어서 우선 고려해야 할 점은 둘 다 시간(Time)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영어에서 상을 시제보다 중요하지 않게 다루는 이유는 시간 관계를 나타내는 시제형은 형태가 뚜렷한데 비해, 상은 형태가 뚜렷한 그 시제형안에 심층적으로 나타나 있어서 시간 관계를 표시하는 면만이 표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하나의 동사형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과거, 현재, 미래의 표층적인 시간 관계를 나타내는 시제와 동작의 양태를 나타내는 심층적인 기능인 상의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상은 시제보다 세계의 여러 언어에서 거의 대부분 나타나고 있으며 훨씬 더 일반적인 것이다. 시제를 갖고 있지 않은 언어는 많아도 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언어는 하나도 없다고 할 정도로 상은 중요한 것이다. 상과 시제를 둘 다 나타내고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어린 아이들의 모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시제보다는 상을 먼저 습득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보더라도 실로 상의 중요성은 대단하다. 이런 상이 시제보다 앞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음의 Jespersen의 예에서 볼 수 있다.

"It is generally assumed that our Aryan languages had at first no real forms in their verbs for tense distinctions, but denoted various aspects, perfective, imperfective, punctual, durative, inceptive, or others, and that out of these distinctions were gradually evolved the tense systems which we find in the oldest Aryan languages and which are the foundation of the systems existing today.³⁾

"본질적인 면에서 볼 때 인도-유럽어(Indo-European)는 하나의 동사가 나타내는 뜻은 먼저 동작의 양태를 그리는 상이며, 그 후에 이 일차적인 뜻을 나타내는 상이 변하여 시간 관계를 나타내는 시제형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라고 Jespersen은 말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시제는 상에서 파생된 것으로 시제가 나타내는 시간 관계는 객관적인 시간이며, 반면에 상은 주관적인 것으로서 화자가 행위를 묘사하는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시제와 상의 순서를 본다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즉 Indo-European → Aspect → Aktionsart → Tense 의 순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제는 그 형태에 의해서 가려져서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상보다는 나중에 생겨난 것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시제에 대한 정의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내려졌는데 시제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영어는 다른 인도-유럽어(Indo-European Languages)에 있어서처럼 시제형이 과거, 현재, 미래 등 시간 관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진행, 완료, 반복 등 동작의 종류 및 기타 여러 특수한 상황을 나타내기 때문이다(1971:61). 그러므로 시제는 동작이나 사건의 시간 및 그것의 완료의 상, 진행의 상을 반영하는 언어학적 형태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즉 시제란 동사의 굴절형이나 조동사의 도움을 받아 동작의 시간관계는 물론 동작의 종류까지 표출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제라고 하면 학교문법인 전통문법에서 다루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하는 것이 여러 언어에서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물론, 모든 언어들의 3시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전혀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언어도 이 지구상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의 3시제 체계이다. 위에서도 약간 언급이 되었지만 영어에서 시제는 3시제로 구분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사실 영어에서 미래시제는 없다. 현재시제는 화자가 말하는 발화시와 실제 상황의 일어나는 시간이 일치하는 것을 말하고, 과거시제는 실제 일어나는 상황의 화자가 말하는 발화시 이전에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미래시제는 실제 일어나는 상황의 화자가 말하는 발화시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2) a. Chang-ho is studying English.(현재시제)
- b. Chang-ho studied English.(과거시제)
- c. Chang-ho will study English.(미래시제)

이와 같이 3시제로 구분하는 것이 쉽고 일반적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다음의 예문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 (3) a. I am going to go abroad for study.
- b. He was about to have breakfast.
- c. That'll be the postman.
- d. She'll sit for hours watching television.

(3a, b)는 미래의 의미를 갖고 있으나 미래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 타당한 이유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미래시제라고 생각해 왔던 조동사 will의 의미를 파악해 보면 will이 결코 미래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위의 예문 (3c)에서 쓰인 조동사 will은 문 밖에서 초인종을 누르는 사람이 우체부일 것이라는 가능성(probability)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3d)에서는 그녀의 습관적인 행동(habitual activity)을 나타내고 있으며, (3e)에서는 미래시일 뿐만 아니라 청자의 의지(willingness)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는 will은 미래시제를 나타내고 있다고 알고 있으나 위의 예문들에서 보듯이 오히려 의지나 가능성 등 법성(modality)을 더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어에서 시제라고 하면 과거, 현재만을 인정하고 미래는 미래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 견해라고 보아야 한다.

시간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시제(tense)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상(aspect)이다. 상의 의미는 시제와 조금 달라서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말하는가와 상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직시적인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영어에서 상이란 개념은 전통적으로는 시제의 개념에 포함되어 사용되었으며 특별히 구별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영어에서 가장 논의의 대상이 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시제(tense)와 상(aspect)이란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상을 그냥 간과해 버리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시제와 상의 관계는 모두 시간관계를 동사의 형태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구별이 어려운데 이유는 언어에 따라 다르고 인간의 사고 즉 화자의 주관적 감정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분석방법이 복잡하다. 그러나 시제와 상은 상호 관련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을 연구한 학자들도 많으며 시제에 비해 상이 덜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간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시제형은 형태가 뚜렷한데 비해 상은 형태가 뚜렷하지 않거나 또는 시간관계와 동작의 양태가 함께 엉켜 시제형안에 투영되어 시간 관계만이 각광을 받아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상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인도-유럽어(Indo-European Language)에서 발생되었다. 동사의 중요한 기능인 상은 동사를 나타내는 동작의 양태에서 차츰 변질되어 시간관계를 나타내는 시제체계가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언어 발달 과정에서 보면 상 표현이 먼저 생겨났고 그 후 논리적 시제표현으로 전이되었다.⁴⁾ 상이란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의 양태, 유

를 통한 상적대립이 문법화되어 있지 않아서 상을 하나의 독립된 문법범주로 인정하는데 논란이 있어 왔다. 즉, 상표지가 존재하는 다른 언어와는 달리 영어는 동사 자체가 갖고 있는 내면적인 뜻에 의해 상이 표출되므로 해석이 다양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상은 시제보다 세계의 여러 언어 속에서 대부분 발견되어지는 훨씬 더 일반적인 것이다. 시제를 갖고 있지 않은 언어는 많아도 상을 갖고 있지 않은 언어는 거의 없다. 그리고 시제와 상을 둘 다 갖고 있는 모국어룰 배우는 어린이는 시제보다 상을 더 빨리 습득한다는 점을 보더라도 상은 발생학적으로 시제보다 상이 더 앞선다는 것이 사실이다.

상은 시제처럼 언급된 상황의 시간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시간을 어떠한 시점과도 관련시키지 않고 한 상황의 내적 구조만을 보는 방법을 말한다. 영어에서 *She danced.*와 *She was dancing.*의 차이는 시제의 차이가 아니다. 왜냐하면 둘 다 절대시제로서 과거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상과 시제는 구별이 된다. 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 두 문장은 완료(perfective)와 미완료(imperfective)로서 대립되는 두 가지의 상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상을 시제 속에 포함해서 보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상의 의미와 분류

3.1. 상의 의미

상이란 것은 원래 슬라브어 계통의 언어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러시아어에는 하나의 동사에 두 가지 형식, 즉 완료와 미완료가 있어서 이른바 상적 대립(aspectual pair)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언어이다.⁵⁾

상(aspect)은 기준시와 사건시를 관계지우는 것으로서 동작, 상태가 기준시에 완료했느냐, 안했느냐 즉 완료인가, 미완료인가 또 계속 중이냐 아니냐 즉 계속인가 비계속인가라고 하는 동작의 양태를 나타내는 문법범주이다. 영어에

4) 백문규(1987). 「영어 시제와 상의 의미론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2.

5) 러시아어가 상적 대립을 나타내고 있는 가장 뚜렷한 언어인 데 다음의 예에서 우리는 잘 알 수 있다. 러시아어의 동사 'stroit'와 'postroit'는 영어의 'to build'와 같은 의미이나 다음과 같은 상적 차이를 보인다. a) Rabocie stroili (ipfv. dom. b) Rabocie postroili (pfv. dom. a)와 b) 둘

는 완료상과 진행상이라고 하는 두 개의 상이 인정되고 있으나 이것들은 시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다음 (4)의 문장은 시제라는 점에 있어서는 현재시제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 (4) a. She has worked.
b. She is working.

그리고 다음 (5)의 문장도 과거시제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 (5) a. She had worked.
b. She was working.

이와 마찬가지로 다음 두 문장의 사이에는 계속과 비계속의 대립이 있다.

- (6) a. She works.
b. She is working.

그리고 다음 두 문장 사이에는 비완료와 완료의 대립이 있다.

- (7) a. She works.
b. She has worked.

위에서 본 바와 같이 (4~7)까지의 어느 쌍에 있어서도 시제의 대립은 없다. 즉 영어에서의 완료상과 진행상은 상의 하위 범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영어에서도 상은 나타나는 데 시제에 다소 가려져 있어서 그 본래의 의미를 발휘하지 못하는 면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상은 어떤 상황의 내면구조를 관찰하는 방법으로 상황 전체를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하나의 전체로 보는 완료상(perfective aspect)과 상황의 내면구조와 관련시켜 어느 일부분만을 보는 비완료상(imperfective aspect)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즉 완료상은 절대적인 완료의 의미로 유표(Marked)이고, 비완료상은 무표(Unmarked)이다. 영어에 있어서 상은 러시아에서와는 달리 문법적 범주로서의 상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관하여는 논의가 많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영어의 완료형과 진행형을 러시아어의 완료상/비완료상의 대립에 해당한다고 보는 막연한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이렇게 볼 때 상은 영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Quirk et al.(1985:4.17)은 영어의 상 대조

진행상(progressive aspect)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두 개의 상은 단일 동사구에 결합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다음의 예에서 보면 잘 알 수 있다.

- (8) a. John read a book.
 b. John is reading a book.
 c. John has been reading a book.

(8a)는 John이 책을 읽기 시작한 것을 의미하면서 완료상에 해당한다. 그리고 (8b)는 진행중임을 나타내므로 진행상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8c)는 완료상과 진행상의 형태를 모두 취하면서 두 가지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봐야 한다. 정확한 상의 파악은 문장의 뜻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처럼 표층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상의 의미를 판단하는데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⁶⁾

먼저 형태(form)를 살펴보아야 한다. 영어는 'have + V -ed'나 'be + V -ing'와 같은 form에서 보이는 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개별 언어마다 상적 특질을 표현하기 위해 특별한 문법 형태를 취하는 예가 다양하다. Russian은 perfective와 imperfective를 French는 durative와 nondurative를 문법화 하고 있다.

둘째로는, 동사 자체가 갖고 있는 내재적인 뜻을 고려해 본다. 즉, 동사의 의미가 갖고 있는 상적 특질을 고려하는 것이다. 동사에는 근본적으로 perfective meaning을 갖는 것(*bring, find, come ...*)과 imperfective meaning을 갖는 것(*sleep, live, stay ...*)이 있다. 따라서 perfective meaning을 갖는 동사는 보통 imperfective meaning을 갖는 동사와는 쉽게 구별되어 질 수 있다.

세 번째로, 동사에 접두사를 붙이거나 동사의 일부를 변화시키거나 혹은 부사적인 요소를 첨가하여 상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이 경우는 영어보다 독일어의 예가 더 적절하다. 영어의 경우 *sit*와 *set*, *lie*와 *lay*에서 모음을 변화시켜 상이 달라진 예가 있으며, *drive*와 *drive away*, *sit*와 *sit down*은 부사의 유무에 따라 상이 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맥(context)에 따라 같은 동사라도 상이 달라 질 수 있다.

- (9) a. I see what you mean.
 b. We call a man blind when he(she) cannot see.

(9a)에서 see는 완료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9b)에서의 see는 비완료상 즉 진행상을 보여준다. 이렇게 상을 나타내주는 여러 가지의 고려해 보아야 할 면들을 살펴보았는데 이점에 대해서 Jespersen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⁷⁾

Nor have these writers always distinguished the four possible expressions for 'aspect,' (1) the ordinary meaning of the verb itself, (2) the occasional meaning of the verb as occasioned by context or situation, (3) a derivative suffix, and (4) a tense form.

원래 인도-유럽어(Indo-European)의 상이 영어나 독일어가 속하는 게르만어 계통의 언어(Germanic languages)에 내려와서는 시제(tense)로 체계화되었으나 그 원래의 상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영어에 잔존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여겨진다. 영어의 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상 범주를 두 가지 즉 문법적 상(grammatical aspect)과 어휘의미적 상(lexico-semantic aspect)으로 분류를 해야 할 것이다. 이 분류는 Comrie(1976: 6-7)가 언급하는 상(aspect)과 어상(aktionsart)에 해당되는 것이다. 문법적 상은 상의미의 문법화(grammaticalization)로서 형식적으로 문법 범주화된 러시아어에서와 같은 완료/비완료의 상의 대립이고, 어휘의미적 상은 의미의 어휘화(lexicalization)로서 '순간', '기동', '완료', '결과', '계속', '반복' 등의 상의미가 개별동사의 어휘적 의미나 그 동사가 처하는 맥락에 의해서 표현되는 것을 가리킨다. 이 어상은 모든 언어들에 존재할 수 있는 비문법적 범주이다. 이에 반해서 상은 러시아어를 비롯한 발트·슬라브어파를 특징짓는 문법적 범주이다. 영어의 완료형(perfect form)이나 진행형(progressive form)이 상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그 형식이 표현할 수 있는 온갖 의미들의 공통 분모가 상의미, 즉 완료나 계속이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에서는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 보이는 상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완료상과 비완료상 즉 진행상을 살펴보아야 한다.

3.2. 상의 분류

통사론적 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형태상으로 나누어지는 상으로 진행시제로 간주하여 왔던 진행상과 완료시제로 간주하였던 완료상이 있다. 반면에

의미론적 상은 문장 속에서뿐만 아니라 단어 즉 어휘 자체에서 내포되는 상을 의미하는데 다양하게 나타난다. 본 장에서는 이런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상을 통사론적 상과 의미론적 상으로 나누고 그 하위분류로 여러 가지 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3.2.1. 통사론적 상

상이라는 것은 본래 의미론적이나 어휘론적인 범주가 아니고 문법적, 통사론적이고 형태론적인 범주에서 출발하였음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통사론적으로는 상을 분류하는데 기준이 되는 완료상인 “have + pp”와 진행상인 “be + ~ing”로 간단하게 분류가 되지만, 의미론적인 분류는 문장 속에서 그리고 어휘 자체내에서 내포되는 미묘한 의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고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을 크게 또 더욱 시제와 구분해서 하나의 영역 범주로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은 바로 의미론적 상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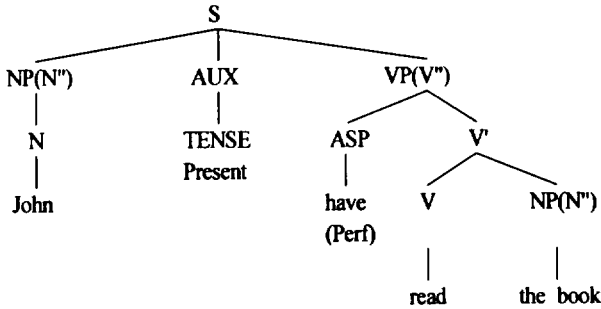
- (10) a. John has read the book.(완료상)
 b. John is reading the book.(진행상)

위의 예문에서 보면 (10a)는 완료상으로 (10b)는 진행상으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상이라는 것은 Holt(1943:6)가 말했듯이 시제와는 달리 어떤 한 시점의 내적인 시간적 연속성을 관찰하는 다른 방법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위의 (10)에 쓰인 예문은 시제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이지만 상적인 의미에서 보면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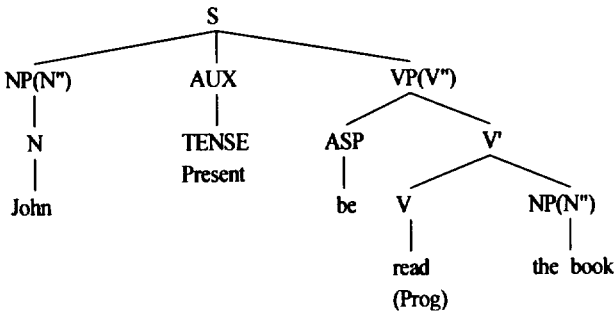
완료상은 하나의 완전한 전체로서의 상황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가 갖는 행위에 대한 내적인 연속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것은 사실이다. 즉 (10a)는 John이 책을 계속해서 읽어왔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에 미완료상인 진행상은 사건 내에서 어떤 상황을 보는 것이다. 즉, 어떤 상황에 대한 내적 시간구조와 관련이 되는 것이며 사건이 끝이 아니라 진행임을 알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상이라 할 수 있다.

위 (10)의 문장의 통사구조를 다음(1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1) a.



b.



여기에서 보면 AUX의 자리가 비어 있을 때 ASP가 그 자리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어에서 문장 기본 구조를 보면 NP다음에 AUX가 오고 그 다음에 VP가 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구조이므로 어쨌거나 AUX자리에는 TENSE가 나타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리고 ASP가 완료인지 진행인지에 따라 완료상이 되기도 하고 진행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이 통사구조에 의해서 알 수 있다. 또, V' node 밑에 있는 V에서 진행인지 완료인지에 대해서 이미 주어져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상조동사 have와 be에 의해서도 어느 문장이 완료상이고 진행상인지를 쉽게 알아낼 수가 있다.

3.2.2. 의미론적 상

의미론적 상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이 크게 분류할 수 있다. 물론, 의미론적인 상은 일반적으로 통사적인 분류의 상 구분인 완료상과 미완료상

완료된 상황이므로 별 문제가 없지만 미완료상은 다양하게 쓰이므로 의미론적인 상을 대별해 주는 상이라 할 수 있다. 양용준(2002)은 상의 분류를 일반적인 분류인 문법적 상과 어휘적 상을 (12)와 같이 의미론적 상과 통사론적 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12) 상의 분류

- a. imperfective aspect(의미론적 상)
 - habitual aspect
 - continuous - progressive
 - nonprogressive
- b. perfective aspect(통사론적 상)

이에 대한 예문은 다음 (13)과 같이 나타내고 있는데

- (13) a. John used to work here. (습관상)
- b. John was working (when I entered). (진행상)

그러나 이것은 상을 의미론적으로 크게 분류한 분류 방법이지 결코 상을 의미론적으로 세분하여 분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먼저, 어떤 일이나 행동에 있어서 예측이 가능한 그런 미래 예측적 상인 예기적인 상(prospective aspect)과 일이나 행동에 있어서 과거에 대한 반성과 후회까지도 포함하는 과거에 대한 회상적인 상(retrospective aspect)을 살펴볼 수 있는데 예기적인 상에 대한 전형적인 표현으로는 *to be going to*, *to be about to*, *to be on the point of*, *ask*, *think of* 등이 있다. 예기적인 상을 나타내는 예문은 다음과 같다.

- (14) a. The ship is about to sail.
- b. The ship is on the point of sailing.
- c. The ship is going to sail.

위의 예문(14a, b)는 미래 사건과 관련된 배의 현재 상태를 묘사하고 있으며 이것은 임박한 미래사건을 나타내고 있고, (14c)는 미래사건과 관련된 현재 상태를 묘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임박한 미래성에 대한 의미는 내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예기적인 상에 대한 반대 차원에서 회상적 상(retrospective aspect)을 들어 볼 수 있다. 예기적 상이 미래 지향적인 상이라면, 회상적 상은 과거 지향적인 상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지향적인 회상적 상에

여기에서 (18a)는 상태동사가 쓰였으며 (18b)는 행위동사가 쓰였다. 그렇다면 이 두 동사는 끝이나 목적을 갖고 있는 동사가 아니어서 이를 비제한적 상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18c)에는 결과동사가 (18d)에는 성취동사가 쓰였다. 이처럼 끝이라든가 결과를 갖는 동사가 쓰였으므로 제한적 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Vendler(1976)가 슬어동사 4가지 분류 유형에 따라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18a,b)에서는 George가 기다리면서 목표점이나 끝이 없는 그런 경우로 이런 동사를 atelic으로 분류하고 비제한적 상이라 할 수 있다. (18c,d)는 편지를 쓴다는 그런 점에서 끝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으로 telic으로 분류하고 제한적 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한적 상과 비제한적 상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동사를 분류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다.

(19) a. States are non-dynamic, durative and atelic.

b. Activities are dynamic, durative and atelic.

4. 중등교재에 쓰인 영어 상의 의미 · 분석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 · 시제 · 시간의 개념과 상의 의미 및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현재 중등학교 교재에 쓰여 있는 상을 여러 가지 부류로 분류해서 그것들이 어떻게 쓰이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여기에 분류되는 상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문법적인 상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도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 표 1 >

교재구분 학년구분	K출판사		D출판사	
	2학년	3학년	2학년	3학년
1) 미래진행상	0	0	1	4
2) 과거진행상	8	2	17	25
3) 현재진행상	45	61	85	54
4) 미래완료진행상	0	0	0	0
5) 과거완료진행상	0	0	0	1
6) 현재완료진행상	0	0	0	11
7) 미래완료상	0	0	0	0
8) 과거완료상	0	12	0	42

위 <표 1>의 통계를 보면 중학교 교과과정에서 운영되어지는 교육과정중에서 상이 차지하는 위치가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래를 나타내는 진행상은 '인위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일이라야 하고, 또한 인위적인 계획은 인간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어는 반드시 인간 명사(human noun)라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표 1>에서처럼 미래 진행상은 없으나, 현재 진행상이 많이 쓰이고 있음은 논리적 구문보다 인물 중심의 문장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진행상은 단순 진행상보다 청자에게 부담을 덜 준다는 의미에서 중학교 학생들의 교재는 부드러운 감을 더 심어 주려는 문장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과거 어느 한 시점에서 생각하는 미래인 과거 진행상은 이루어지지 않은 과거의 의도를 나타내기 때문인지 중학교 교재에서 많이 쓰이지 않고 있고, 쓰더라도 중문(compound sentence)에서 쓰여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가상적 문장은 중학교 과정에서 다루기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과거 진행상은 교재에 따라 사용 빈도가 달라서 교재제작 과정에서 구문사용에 제약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진행상에서는 현재진행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과거 진행상과 미래 진행상은 교재마다 차이점이 있어서 일선 현장에서 상을 가르침에 있어서 진행상은 현재 진행상, 과거 진행상, 미래 진행상이 순서로 가르치고 있다고 보아야 하나 교재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도 교재내용이 일관성 있게 분석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영어에서 시제라는 개념 속에 상을 포함해서 교육하는 것보다는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 그리고 진행상, 완료상으로 구분해서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고 더욱 효과적인 것이라 볼 수 있다.

위 <표 1>은 진행상과 마찬가지로 현재완료상이 많이 쓰이고 있고 그 다음으로 과거완료상이 많이 쓰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완료상은 학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은 물론 교재에 따라서도 차이가 남을 나타내 주고 있다. 어느 일선 학교에서 사용 중인 K출판사에서 출판된 교재에서는 미래진행상과 과거진행상, 현재진행상, 미래완료진행상에 대한 예문은 찾아볼 수가 없으나, 현재 일선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교재 중의 하나인 D출판사에서 출판된 교재에는 미래완료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상의 예문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교재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교학사나

에서는 과거완료상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영어에서의 상은 진행상(be + V-ing)과 완료상(have + p.p)으로 크게 나누어서 뚜렷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과 상과 시제를 동시에 갖고 있는 언어에서 어린이들이 상을 먼저 터득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다.

<표 2>

교 재 구 분 학 년 구 분	K출판사				D출판사			
	2 학 년		3 학 년		2 학 년		3 학 년	
상의 유형구분	진행상	완료상	진행상	완료상	진행상	완료상	진행상	완료상
1) 왕래발착의 동사에 쓰인 상	14	2	22	8	26	1	13	6
2) 상태나 감각동사에 나타난 상	4	16	8	10	13	27	27	26
3) 비교급의 문장에 쓰인 상	0	0	4	0	2	0	1	1
4) 부사와 함께 쓰인 상	2	12	5	5	0	0	9	5
5) be going to + V에 나타난 상	9	0	19	0	25	0	10	0
6) 의문문에 쓰인 상	5	13	10	6	29	25	17	12
7) 긍정문에 쓰인 상	49	16	50	19	73	30	77	60

그리고 <표 2>의 (1)에 의하면, 왕래발착의 동사가 완료상보다 진행상이 많이 쓰이고 있음은 우리의 사고를 과거나 현재에 집착하지 않고, 진취적이고 의지적인 면을 더 부각시키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왕래 발착의 동사들의 진행상은 미래를 나타내고, 가까운 미래의 명확한 예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뜻을 함축한다.

<표 2>의 (2)는 원래 feel, hear, see, smell, taste같은 감각동사는 어떤 지각 대상에 대하여 지각자(perceiver)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지각, 즉, 수동적인 지각만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느껴진다」, 「보인다」, 「들린다」, 「냄새/맛이 난다」라는 뜻을 나타내므로 이 경우 이들 동사는 진행상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각자의 의지나 노력에 의해 일어나는 지각, 즉 능동적인 지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지각동사라도 진행상을 취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주어는 자신의 의지를 발동해서 어떤 행위를 야기시키는 사람이다. 이처럼 원래 진행상은 동적동사에 쓰이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은 평소애 안하던 일시적 행동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서 상태나 감각동사에도 자주 쓰여 미래의 고의적인 행동을 나타내거나 단순과거를 쓸 때보다 더 공손한 말투가 됨으로 해서 생동감을 더 강하게 부각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특히 감각동사에 완료상이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동

<표 2>의 (3)은 비교급 문장에 상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중학교 과정에서는 복잡한 사고의 문장은 가급적 회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의 (4)에서는 원래 시간의 부사는 완료 문장에 쓰여서 지금도 계속되는 상태나 막 끝난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원칙인데 진행상에 쓰이게 되면 특정한 기간에 걸쳐 활동이 일시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특히 시간 부사어구가 나타내는 제한된 기간 동안의 반복을 나타낸다. K출판사에서 출판된 교재와 D출판사에서 출판된 교재를 비교할 때 상의 문장에 부사의 사용빈도가 형평성이 전혀 없으므로 해서 교재 구성상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느낌이다. 진행상은 always, continually, constantly, forever 등 빈도부사를 수반할 경우 지속적이거나 자주 발생하는 어떤 일을 나타내며, 표출된 행위에 대해 짜증스러움이나 불만 등과 같은 감정적 색채를 나타내기도 한다.

<표 2>의 (5)에 의하면, 'be going to+V'구문은 어떤 미래의 행동을 수행하려는 주어의 의도 내지 결단을 표현하는데 사용하고 의도는 주어의 현재 심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의도는 언제나 계획적이고 그 행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낼 때 사용하므로 이는 현재진행상이 나타내는 약속이 이미 되어 있는 미래의 예정과는 같지 않더라도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주어의 의식적인 의지의 발동을 암시하므로 be going to+V가 쓰인 문장의 주어는 인간명사라야 하고 술어동사는 동작주 동사라 한다. 이 구문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어떤 원인으로 말미암아 장차 그에 따른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할 때 많이 쓰이기 때문에 'be going to+V'구문은 경우에 따라 주어가 사람이 아닌 경우에도 있다. 특히 진행상을 만들 수 없는 동사에 현재 진행의 대응어로서 때의 표현과 함께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것이 많았다. 주어의 의도를 나타내기 위해 시간이 부사절과 같이 쓰인 것도 있고, 시간 표현 없이 쓴 것도 있다. 특히 왕래 발착의 동사에는 'be going to+V'의 형태가 없다. 긍정문에서 'will+V'가 1인칭의 의도에 사용되고 있다면 2, 3인칭의 의도에는 'be going to+V'가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be going to+V'구문은 미리 계획된 또는 비계획된 구문 양쪽 전부에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2>의 (6)에서 의문문에서 상은 학년에 관계없이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타나는 것은 어쩌면 대화체 문장이 중학교 교재에 많지 않음을 나타내는 일면이기도 하다.

<표 3>

교재구분 학년구분	K 출판사		D 출판사	
	2학년 주절 종속절	3학년 주절 종속절	2학년 주절 종속절	3학년 주절 종속절
1) 미래진행상	0 0	0 0	1 0	4 0
2) 현재진행상	42 3	51 7	75 10	46 8
3) 과거진행상	3 5	1 1	12 5	15 10
4) 미래완료진행상	0 0	0 0	0 0	0 0
5) 현재완료진행상	0 0	0 0	0 0	12 0
6) 과거완료진행상	0 0	0 0	0 0	0 1
7) 미래완료상	0 0	0 0	0 0	0 0
8) 현재완료상	29 10	14 1	53 0	26 2
9) 과거완료상	0 0	11 1	0 0	15 28

미래 진행상은 어느 시점에 당연히 발생하게 되는 일시적인 일을 나타내므로 의지나 의도, 또는 약속의 뜻은 없다. 따라서 <표 3>의 (1),(2),(3)에서 보듯이 미래 진행상이 주절이나 종속절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점은 중학교 과정에서 복잡한 사고를 요구하는 문장을 피하고 현실감을 주기 위해 현재진행상이 종속절보다 주절에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종속절에 과거진행상 사용도 시제 일치룰 가져오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고, 시제가 다른 형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표 3>의 (4), (5), (6) 그리고(7)에서처럼 미래완료 진행상, 현재완료 진행상, 과거완료 진행상, 미래 완료상은 거의 중학교 과정에서 취급하고 있지 않음은 역시 어린 학생들에게 복잡한 사고를 요하는 구문을 피하려는 것 같은 인상

<표 3>의 (8)에서 과거시와 현재시가 결부된 사건이나 상태를 표출하는 현재완료상이 주절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현상은 2학년에서보다 3학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저학년에서는 추상적 개념의 내용을 사용하지 않고 현실감 있는 생활영어나 시청각 프로그램을 의식한 교재내용에 치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표 3>의 (9)에서 과거완료상이 종속절보다 주절에서, 2학년보다 3학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음은 간단한 문장을 사용해서 의사전달의 수단을 간편하게 하고 의미전달을 신속히 하려는데 있는 것 같다. 특히 의심스러운 것은 교재에 따라 주절과 종속절에서 과거 완료상의 사용이 빈도가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5. 결 론

언어의 주된 기능은 사회 속에서 정보를 전달하거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언어를 전달함에 있어서 우리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공통되는 것이므로 언어마다 시간이라는 것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시제라는 개념은 언어에 따라서 달라지고 어떤 언어는 애당초 시제라는 것이 없기도 하다. 이런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개념으로 널리 알려져 왔으나 영어에서는 과거와 현재 시제만이 존재하며 미래 시제는 없다.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상이라는 개념을 거론해야 하는 것이다. 상이라는 것은 원래 슬라브어파 계통의 언어에서 완료와 비완료의 개념으로 생겨난 것인데 영어에서는 지금까지 크게 대두되지 못한 것은 시제라는 개념 속에 묻혀서 제 구실을 못했던 것이라 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시제와 상을 구별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a. John read a story-telling book.
- b. John was reading a story-telling book.

즉 시제와 상은 위의 문장에서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구별할 수가 있고 또 구별해야만 한다. 위의 문장은 시제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과거시제라는 것으로 두 문장에는 차이점이 없다. 그러나 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두 문장

완료상이고, (b)의 문장은 진행의 의미를 보여주는 진행상이라는 점에서 분명하게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기에 시제와 상은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과 시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언어에서 어린아이들이 모국어를 습득함에 있어서는 시제보다는 상을 먼저 습득한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상은 아주 중요한 것이라 할 수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처럼 시제 속에 파묻혀서 제구실을 못하던 상에 대해서 고찰해서 현재 일선 중등학교에서 시제를 가르치는데 있어서 상을 가르침으로서 보다 설득력있게 하자는데 있음을 고찰해 보았다. 시간과 시제, 상의 개념을 살펴 보면서 이들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들 모두가 따로 분리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을 영어에서는 완료상(have + p.p)과 진행상(be + V-ing)으로 구분할 수 있는 형태가 있는데 더구나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것은 문법적인 의미의 상이라 할 수가 있고, 반면에 어휘 의미적인 상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영어에서 상을 확실하게 이해하려면 문법적인 의미의 상과 어휘 의미적인 의미의 상을 이해해야만 한다. 이처럼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 상을 살펴 보는데 주안점을 두고 주목해 보았다.

그리고 교재에서 각각 2, 3학년 교재를 분석해봄으로서 현장교육과 접목시켜 실제 응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측면에서 현재 중등학교 교재를 분석하여 그 유형에 따라서 예문의 의미를 정리하고 분석하여 보았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상이라는 개념은 문법적인 의미의 상과 어휘적인 의미의 상을 자세하게 다루어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어휘적인 의미의 상을 다루는 것보다는 문법적인 의미의 상을 다루는데 주안점을 두었는데 현장교육에서 어휘적인 면보다는 문법적인 면을 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밝혀둔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을 요약해보면, 상이라는 것은 시제보다 먼저 일어나는 것이며 거의 모든 언어에서 상을 찾아볼 수가 있으나 시제는 있는 언어도 있고 없는 언어도 많다는 점과 상과 시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어린이들은 시제보다는 상을 더 먼저 습득한다는 사실은 그 만큼 상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교재 속에서는 상의 쓰임이라든가 의미가 다소 한 곳으로 편중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이런 점이 개선되고 상에 대해서도 시제 속에 묻혀버리지 말고 표층적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경환(1993). 「대학 영문법」, 서울 : 한신문화사.
- 김건옥(1994). 「우리 논리로 이해하는 영어시제」, 서울 : 교문사.
- 김한창(1975). “영어의 진행형에 나타나는 제상”. *Taegu Review*, Vol.17.
- 나건석(1996). 「MIDDLE SCHOOL ENGLISH 2」, 서울 : 동아출판사.
- 나건석(1996). 「MIDDLE SCHOOL ENGLISH 3」, 서울 : 동아출판사.
- 문 용(1994). 「고급 영문법 해설」, 서울 : 박영사.
- 박노민(1988). 「영어상 연구(The English Aspect)」,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노민(1989). “영어 진행형의 상”. *영어영문학* 제35권 2호.
- 백문규(1987). 「영어 시제와 상의 의미론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심명호, 문용, 권오량, Rebecca Wilson(1996). 「MIDDLE SCHOOL ENGLISH 2」, 서울 : 교학사.
- 심명호, 문용, 권오량, Rebecca Wilson(1996). 「MIDDLE SCHOOL ENGLISH 3」, 서울 : 교학사.
- 안동환(1991). “영어의 상 체제에 관한 연구”. *영미어문학* 제25집.
- 양용준(2002). 「영어와 한국어의 상에 대한 비교분석」,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기동(1994). 「영어 동사의 문법」, 서울 : 신아사.
- 이창학(1994). 「영어시제·상의 개념구조적 기술」,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창학(1998). “영어시제와 상의 개념구조”. *공주교육대학교 논총* 제35집 제1호.
- 조성식(1971). 「고등영문법」, 서울 : 신아사.
- 조성식(1990). 「영문법 연구(II)」, 서울 : 신아사.
- 조성식(편집주간)(1990). 「영어학 사전」, 서울 : 신아사.
- 하영진(1986). 「Tense and Aspect in English」, 서울 : 한신문화사.
- 최해영(1996). 「영어의 상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kmajian, Steel and Wasow(1979). *The Category Aux in Universal Grammar*. Linguistic Inquiry.
- Comrie, B.(1976). *Aspect*. London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mrie, B.(1985). *Tense*. London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urme, George, O.(1966). *English Grammar*. U.S.A. : Barnes & Noble, Inc.
- Declerck, R.(1991). *Tense in English : Its Structure and Use in Discourse*. London : Routledge.
- Givon, T.(1984). *Syntax : A Functional - Typological Introduction*. Vol. I. Amsterdam : John Benjamins.
- Jackendoff(1972). *Semantic Interpretation in Generative Grammar*. MIT Press. Cambridge. Mass.
- Jespersen, O.(1924). *The Philosophy of Grammar*. London : George Allen and Unwin.
- Jespersen, O.(1933). *Essentials of English Grammar*. London : George Allen and Unwin.
- Leech, G.(1971). *Meaning and the English Verb*. London : Longman.

- Parsons, T.(1989). "The Progressive in English : Events, States and Processes". *Linguistics and Philosophy* 12.
- Quirk, R. & S. Greenbaum(1973). *A Concise Grammar of Contemporary English*. London : Hartcourt Brace Javanovich. Inc.
- Quirk, R. & S. Greenbaum, G. Leech & J. Svartvik(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New York : Longman Group Ltd.
- Radford Andrew(1988). *Transformational Grammar*. London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ompson, A.J. & A.V. Martinet(1986). *A Practical English Grammar*.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 Verkuyl, J.(1993). *A Theory of Aspectuality*.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lach, F.(1980). *The Semantics of Tense and Aspect in English*. University of New South Walse.

제주도 제주시 아라1동 1번지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690-756

Phone: (064)724-7134, 754-2720

Fax: (064)724-7138, 756-2723

E-mail: usyang@edunet4u.net

접수일자: 2005년 8월 10일

게재결정: 2005년 9월 15일